

문화전당 피서 고르는 재미가 있네



8월 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다채
24~25일 아시아북페스티벌
해외 영화제 화제작 무료상영
새단장 '월드뮤직 페스티벌' 도

연일 짙던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에서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ACC가 여름을 맞아 공연, 축제, 영화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CC는 올해 처음으로 책 축제를 개최한다. 'ACC 아시아북페스티벌'이 8월 24일과 25일에 5·18 민주광장과 ACC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북페스티벌은 ACC 라이브러리파크의 아시아 문화 관련 책으로 만들어지는 '아시아책나무' 전시, 네이버 지식에서 소개된 아시아 관련 책을 한자리에 모은 '네이버 지식-아시아' 기획전시를 비롯해 '새의선물', '소년을 위로해줘'의 은희경 작가와 '별들의 이혼신', '황진이'의 김탁환 작가와의 북토크 등으로 구성된다.

또 공백, 라이프라이프, 삼삼한 책방, 소년의서, 동네책방 숨 등 광주 대표 독립 책방들이 함께 운영하는 '2018 책의 해' 연재 찾아가는 이동책방, 팝북 북에메이션 공모전, 책을 주제로 한 오토마타 체험전 등이 열린다.



지난해 진행된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ACC 제공)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시아의 이야기를 수집해 그림책을 만들어 ACC가 올해는 콘서트로 관객을 맞이한다. 'ACC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북콘서트'는 고려인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의 이은지 그림 작가와 참가자가 책 속의 그림을 함께 그리는 프로그램

램을 마련했다. 북 콘서트는 8월 24일 오후 4시부터 ACC 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또 'ACC 시네마테크'의 개관 특별상영 프로그램을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볼 수 있다. 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요한 루프의 '★',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코뮌', 일본 실험영화 황금기의 작품모음 영상인 '프레임의 간극·일본 실험영화 황금기'를 비롯해 홍콩독립단편영화제(ifva

), 일본이미지포럼페스티벌,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램 등이 무료로 상영된다.

ACC 명소 중 하나인 예술극장 빅도어가 8월 22일과 23일 오후 8시 문을 활짝 열고 야외극장인 'ACC 빅도어시네마'로 변신한다. 22일에는 데이미언 셔젤의 영화 '위플래쉬'를, 23일은 국내 재즈 1세대 뮤지션들의 삶과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브라보! 재즈 라이프!'를 상영한다. 특히 23일은 영화감독 남무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영화 속 주인공들의 공연 무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전시도 감상할 수 있다. ACC는 국제레지던시 사업인 ACC_R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크리에이터스 인 랩'(Creators in Lab)은 ACC 창작센터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창·제작에 몰두하는 레지던시 사업이다.

이 레지던시에 참여한 입주작가와 협업자가 23명이 4개월 동안 창작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미디어 서피스(Media Art), 믹스드 리얼리티(VR/AR), 인공지능 비주얼 사운드(AI+Sound),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4개 분야 창작자들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창작센터 스튜디오, 아시아문화광장 미디어월, 어린이극장, 메이크스 스페이스에서 전시, 영상 상영, 공연, 워크숍을 갖는다.

이밖에 '2018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공연,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 'ACC 브런치콘서트', 'ACC 아트트레일러' 등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영국 런던의 템즈강변에 자리한 테이트모던 미술관(이하 테이트모던)은 한해 600여 만명이 찾는 글로벌 명소다. 4년 전 선진문화도시의 예술교육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던 날, 미술관을 가득 메운 인파에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미술관은 실험실(Lab)이 되어 한다." 인터넷과 SNS로 대변되는 21세기 미술관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는 상상력의 보고(寶庫)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술관 수장이었던 니콜라스 세로타(70·현 영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메시지는 국제 미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테이트모던의 '깜짝발표'에 화답하고 나선 이는 매트 행콕(39)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다. 그는 "매년 미술관을 찾는 젊은층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사'는 영국 미술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영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도 테이트의 바통을 이어받기를 희망했다. 사실 컴퓨터게임, 유튜브, 스마트폰과 같은 '핫한' 콘텐츠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에게 미술관은 낯설거나 지루한 곳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최근 지역미술계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이다. 지난달 조진호 전 시립미술관장의

테이트가 청년이사를 '모시는' 까닭은

(테이트모던 미술관)

최근 테이트모던이 또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로타의 후임으로 취임한 마리아 발소(47)관장이 "지난달 20대 청년을 미술관장으로 영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청년 이사 선임은 영국 미술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테이트모던이 청년이사를 '모시기'로 한 이유는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의 관심사를 미술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미술관이 타겟으로 삼은 연령은 16~25세. 현재는 전체 테이트 입장객의 20% 안팎에 불과한 '마이너'이지만 10~20년 후에는 미술관의 큰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를 미술관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현재 테이트모던의 최연소 이사는 47세의 기업인이다.

사토로 공석이 된 이후 10여 명의 미술계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후보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의 '낙점'을 받기 위해 온갖 '채널'을 동원하는 등 물밑작업이 치열하다는 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992년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이지만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대표적인 미술인 프라이지만 시스템이나 운영, 콘텐츠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시립미술관장 선임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민선7기의 문화정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21세기형 수장이 필요한 건 그 때문이다. 지역주의에 기대거나 전통적 프레임에 갇힌 리더는 미술관의 미래가 담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김선제 아쟁 독주회' 내일 전남대 예방홀

제7회 김선제 아쟁 독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방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아쟁독주곡 '일탈', 아쟁독주곡 1번 '뫼다손 편지', 해금독주곡 '비(悲)', 아쟁·가야금 2중주 '아리랑', 소아쟁을 위한 프롤로그 '푸념'이다.

아쟁연주자 김선제 명인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다. 제3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제1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제3회 광주국악대전 일반부 최고상 등을 받았고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아쟁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김선제

이날 공연에는 해금 김선임, 가야금 김한아, 장구 김준영, 징 한정민 등이 출연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9636-75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운동주, 달을 쏘다' 영상으로 만난다

내일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작은스크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지난해 서울예술단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대표 레퍼토리 '운동주, 달을 쏘다(사진)'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운동주의 생애와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들로 채워진 '운동주, 달을 쏘다' 무대는 문학·음악·춤·극이 어우러진 한국예술의 총집합이다. 2012년 초연, 2013년 재공연 모두 93%가 넘는 객석 점유율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2016년 다시 무대에 올라 객석점유율 100%에 이를 만



큼 관객과 평단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31, 7세 이상 관람.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상블시나위와 '굿' 한판...27일 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양상블시나위를 초청해 현대판 '굿' 공연을 펼친다. 27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이날 공연에서는 '월식', '달빛유회', '아쟁', '영혼을 위한 카덴자', '시간의 경계', '부용산', '사랑가' 등 총 7곡을 만날 수 있다.

양상블시나위는 2012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했으며 신현식(아쟁), 김양화(가야금), 정승호(영금)으로 구성됐다.

공연 당일 오후 6시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무료관람. 문의 061-540-4031-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